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에도 지구촌은 여전히 분쟁과 고난 속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낮고 천한 곳에 찾아오신 주님의 뜻을 따라 힘든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며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껏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2월 17일 (토) 제 161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성탄 칼럼

2016 주빈 없는 생일잔치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부모님의 정성어린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와서 학업을 마친 아들이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취직을 한 후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외아들이 그는 고국에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와 같이 살기위하여 초청을 하였다.

아버지 생일이 돌아오자 아들은 모처럼 모셔온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푸짐한 생일잔치를 마련한 후 자기 친구 수십 쌍을 초청하고 밴드도 불렀다. 아들 내외는 한국 시골에서 오신 아버지, 어머니께 그런 자리가 어울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다. 그리하여 생일을 맞이한 주빈인 부모님을 위하여 다른 방에 음식을 차려놓고 노부부가 드시도록 하였다. 아들 내외와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밴드에 맞추어 춤을 추며 흥겹게 놀았다. 생일의 주빈인 아버지는 이곳에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고 판단한 후 섭섭하고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되돌아갔다.

오래 전에 어느 양가집 아들의 결혼 주례를 부탁 받았다. 시간이 되어 결혼식장에 갔으나 아직 신부가 도착하지 않아서 신랑과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30분,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도 신부는 나타나지를 않았다. 결국 그 잔치는 무산되고 말았다. 주인공이 없는 잔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어느덧 상가와 거리에는 성탄 축하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그 날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는 천군 천사의 우렁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껏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축하를 여기저기 본다. 첫 크리스마스의 축하는 주빈 되신 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축제였다. 이렇게 할 때 첫 크리스마스처럼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화가 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스마스처럼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화가 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2016년 성탄절 축하는 오직 예수님이 주빈이 되시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여야겠다. 혹시 예수님을 빼놓은 사람들만의 축제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첫 성탄 때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축하를 상세히 기록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탄 축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동방 박사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하였다. 구유는 곧 예수께서 나신 곳으로 오늘날 예수님이 계신 몸 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성탄 축하는 성탄의 주빈이 되신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축하하는 예배로 드러져야 한다. 그리고 빈손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며 축하하여야 한다. 성경학자들든 황금, 유향, 몰약은 예수님의 애급 피난 생활을 위한 소중한 생활비로 쓰였다고 말하고 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동방 박사들의 축하와 경배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 축하를 준비하여야 한다. 금년 성탄 축하에는 오직 성탄의 주빈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는 축하가 되도록 초점을 맞추자. 이러한 성탄의 본질을 알고 축하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성탄서



곽상희(서인)

2016 크리스마스의 기도

주여 금년에는
정직한 마음에 말구유를 펴소서
깨끗하고 가난한 마음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마음에 오시어
복극의 열음보다 차가운 마음에도
무지와 이기심 미움이 불타는
무질서의 거리에도 오시어

희망과 사랑이 분노의 바람에 낙엽처럼
떨어져 슬프게 둥구는
우리의 가슴에도 오시어
우리의 소망과 믿음 사랑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어깨를 다독거리는 손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고 기다리는 양심에
인내의 말구유를 펴소서

오해와 폭력 미움과 살인이
난무하는 이십일세기의 거리 거리에는
이해와 사랑 희망의 말구유를 펴시어
평화의 왕이시어 오시옵소서

주님 일 년 내내
우리의 가슴에는 평화와 기쁨이
참자유가 넘치는 말구유가 되소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성탄절 되어 한다!



3면
성탄 설교
민경엽 목사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2면
살림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시론

사슴나무골에서(37): 2016년 한 해를 보내며



박서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미국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최첨단 IT 관련 기업들이 집중해 있는 소위 실리콘 벨리의 마케팅 분석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남한의 소비 규모 때문이 아니라 유행과 트렌드를 앞서가는 소비자들의 탁월한 감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 시장에 먼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해서 그 반응을 살펴보면, 다른 주요 국가들의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IT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가의 자동차나 패션 아이템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제품을 출시하고 고객들의 반응과 평가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경제를 넘어 정치마저도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겨우 70여년 정도 밖에 안되는 그것도 분단된 작은 나라에서 영국과 독일에 이어 여성 대통령을 선출하더니 200여 만 명이 촛불을 들고 야당과 여당 의원들까지 합세해서 평화적으로 그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였습니다. 전세계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이 신기한 현상을 보도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차기 정권이 미국과의 동맹과 교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느라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 북한과의 관계 변화가 동북아시아 정치와 경제, 군사외교상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도 한국의 경쟁업체들에게 가해질 제재나 법적 조치가 가져올 상황에 대비하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영적인 현상은 예외일지 모르지만, 한국은 일찍이 복음이 처음 전해지면서부터 미국과 전세계 기독교계에는 동양의 이스라엘로 알려졌었고, 최후의 교회와 신학교가 세워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말을 듣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남북 분단이후에 남한에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미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유럽에서 이미 드러난 기독교의 쇠퇴를 답습해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불과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었고,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간에 걸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표방한 정치, 경제, 및 종교와 사회 전반의 지도자들의 삶과 이미지는 각종 언론과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온 북가주의 한 대형교회 미국 목사님의 근심어린 멘트가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의 성장은 멈추었고 젊은 청소년들 세대는 이미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열기는 찾기 힘들며, 이웃 교회의 기존 교인들을 유치하기위한 상상을 초월한 세속적 마케팅이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만의 자랑이었던 새벽기도마저 참석자들이 줄어 평일 새벽기도를 아예 폐지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건축이 부담이 되어 건축을 중단하거나 교회 건물과 대지를 다시 파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세의 징조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이단 사이비 교주와 그 가족들에게 속아서 수십년을 농락당하며 국가와 국민들을 농단한 사실은 한국의 오늘날 영적인 주소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회에 초청받아 대통령과 악수 한 번하고 그 사인을 교회에 붙여 놓고 자신이 마치 대단한 인물이나 된 것처럼 허세를 부릴 때, 미혹의 영은 나라와 지도자들을 타락시키고 분열의 영은 백성들을 갈라놓아 서로 마치 원수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고통 받는 백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민교회들도 고국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tdspark@gmail.com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성탄절 돼야 한다!

'2016 성탄절 맞아 그 유래와 의미 그리고 올바른 실천위한 제안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은 성자(聖子) 하나님께서 인성(人性)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구속사적(救贖史的)으로 임하신 일을 기념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정확히 어느 날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지 알지 못한다. 성경이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성탄절을 지키는 기간이 다르다.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기념하던 이교적 절기에 교회는 태양이 신(神)이 아니며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고 영적인 의미로 진정한 태양이심을 증언하면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 크리스마스(Christ-mas)의 기원이 됐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이교(異敎) 나라였던 로마에 기독교가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절기다. 이전에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에는 더 이상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탄절인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가 빠진/없는 성탄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생략된 그야말로 예수님 없는 예수님 생일잔치로 세상이 시끄럽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없다.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만드는 데 일등 공신은 크리스마스론 돈을 벌러 보러는 알뜰한 상술이다. 그러나 이 상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교회가 더 문제다. 예수님 없는 예수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성탄절이 될까?

올곧은 성탄절이란 이 날에 우리 주께서 탄생하셨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실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육신(成肉身)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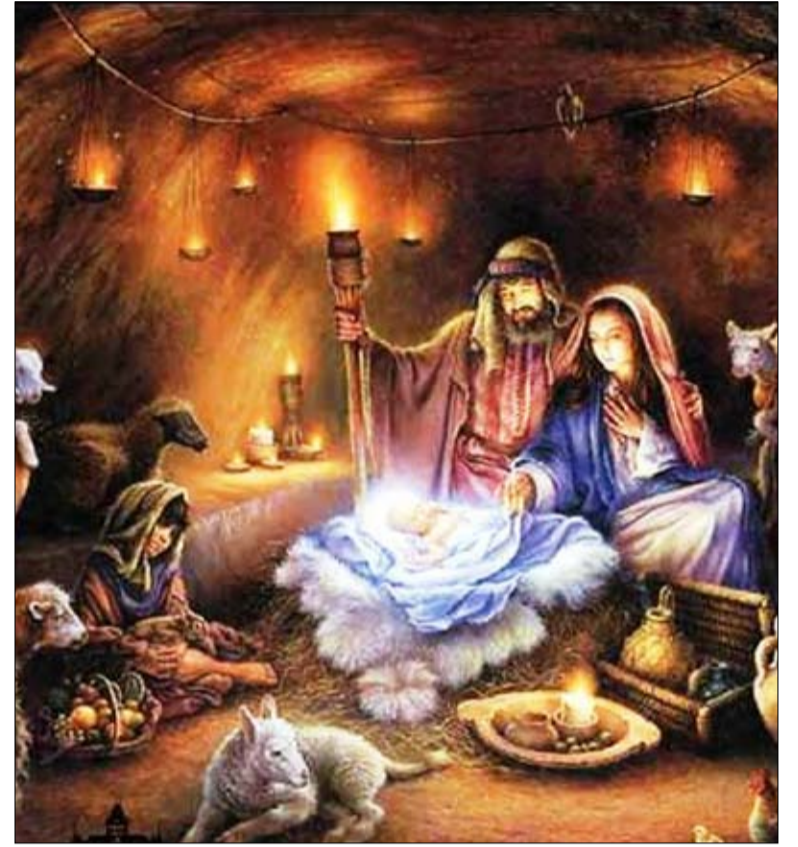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기에,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대리속죄(代理贖罪)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이며, 이와 같이 심각한 죄 문제 때문에 주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하게 된

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라고 선포했다.

이와 같이 땅 위에 화평(和平)과 사람들에게 호의(好意)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피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대열에 함께 서자!

다. 이런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성탄절이라면 참으로 무의미한 날이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의미 없이 이 절기를 보내는데 익숙해졌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촌에서 시리아 반군 거점인 북부 도시 알레포는 가장 잔인한 성탄절을 맞는다. 유엔은 올해 성탄절 무렵이면 알레포 내 식량과 식수를 포함한 물자들이 모두 바닥나, 알레포에 고립된 민간인 27만여 명이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휴전과 구호물자 보급을 요구해왔다. 알레포와 같은 곳에 비싼 성탄 트리나 점등 시설 설치 비용대신, 당장 먹거리와 따뜻한 담요를 전하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부합될 수 있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

사람들, 즉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구속사역이 이 땅에 화평을 주고 사람들이 호의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결국 온전한 크리스마스의 회복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문화가 팽배하다. 첫 성탄절의 아픔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공간이 없다. 교회는 연말연시 다양한 행사들과 내년 사업 계획 등등으로 분주하고 복잡하다.

성탄절은 모름지기 예수님의 계절이다. 영혼의 말구유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성

탄절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날이다. 예수님이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교회가 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일에 관심을 갖고 생명의 알짜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성탄의 계절에 교회는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성탄절이 돼야 한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이 돼야 한다!

크리스마스의 왜곡은 기독교 복음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크리스마스가 참된 크리스마스가 돼야 한다. 우리 영혼의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실 수 있기를 바란다. 온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참된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벌여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즉 피흘려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대열에 함께 설 수 있게 돼야 한다.

<편집부>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7년 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문의: 전화 (636) 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대형 문구 점들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곳에는 아예 크리스마스카드나 편지지 자체가 없었고, 다른 곳에는 카드가 있긴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었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된 카드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자체를 부인하려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지금 종교도 정신에 의해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도 정신을 온 나라의 구성구석에서 지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분위기도 비슷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초림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은 사람들은 종교나 학문과는 거리가 먼 미천한 목동들과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먼 이방 땅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참 왕이신 메시아를 누구보다 영접했어야 할 유대 왕 헤롯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해 듣고 죽여 없애려 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맞았어야 할 제사장들이나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쳐 백성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해야 할 서기관들은 이방인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부랴부랴 성경을 살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찾아냈을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에 젖어서, 또 세상 살기가 너무 바쁘고 고되어서 정작 그들의 영원한 죽음과 생명을 좌우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중에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였던 것은 대부분 세속적인 영광과 풍부함과 안락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극소수에 해당되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시므온이라는 사람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후 8일 만

에 다른 남자 아이들처럼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당시의 남자 아이들이 정결예식을 거행한 것처럼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인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대로 사는 신실한 자라는 뜻입니다. 전형적인 구약 시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리سد도를 보게 될 것을 성령을 통해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질 날을 기다려온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찬양하였습니다.

시대를 타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타락의 길을 간다 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이 메시아를 낳은 백성이어서 만민에게, 그리고 이방에게 빛을 비추는 민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을 가장 큰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3. 시므온의 예언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예언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34절). 패함과 흥함이라는 표

보내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이제 확실히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비천하고 작은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십니다(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공격하고 비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였습니다(요1:11).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비

마리아의 가슴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아들이 될 것이라는 뜻이며,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요19:25).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서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비방을 당해야 십자가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겸손하게 맞아들여야 합니다.

4. 시므온을 통해 배울 교훈들

무엇보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시므온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이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집가고 장가 가며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삽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 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는 지옥이 되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또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고전1:18). 원래부터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자꾸만 이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산다는 믿음을 굳게 하기를 바랍니다.

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순간에도 그들은 이렇게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돌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셋째로, 그는 깊은 고통을 안겨 주십니다(35절). 시므온은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아들이 되실 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골리앗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커다란 칼이고 야만인들이 휘두르는 칼입니다. 또한 여기 마음을 찌른다는 말은 칼로 계속해서 도려낸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아기 예수님은 어머니

현은 원래 넘어짐과 일어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하게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게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일어하게도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판도가 달라질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요3:16-18). 이제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세상에

루어지는 것입니다.

2. 시므온의 찬양

시므온은 그 어린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아를 죽기 전 볼 것이라고 하신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28-32절). 그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암흑 가운데 헤매던 인류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구세주로 인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예비된 것이며 이방에 비추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사40:1,2). 시므온은 이 위로의 말씀이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남기고 보존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 동안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약속하신 바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불드시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의롭고 경건한 자로, 주위의 불신앙과 패역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성별되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시므온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



베데스다 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D.Min) 신(편)입생 수시 모집안내

2017 겨울 학기 인테시브 · 개강 1월 23~2월 4일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해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융자가 가능하며(FAFSA)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습니다 (등록금의 50% 장학금 혜택)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2016년 베데스다 신학과 온라인 수업은 미국 전역의 기독교 대학들 중 수업 평가에서 29위를 차지했으며 40위까지 발표된 명단에 한인 신학교로는 유일하게 올라갔습니다. http://www.affordablecollegesonline.org

1976년, 베데스다 대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와 성경을 통하여 세계선교에 힘쓸 수 있는 리더들을 배출하고자 설립 되었습니다. 21세기의 시작에 있어서, 베데스다 대학교의 목표는 기독교 교육의 세계적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순절 성령운동 안에서 헌신 할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대학교는 교회, 지역사회, 세계에 있어 전문적 능력, 학문적 우수성, 종교적 진실성을 지닌 한국어/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준비시키는 기독교 중심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지원자는 반드시 학위를 인준 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원으로부터 Master of Divinity(M.Div) 학위를 소유한 자로서 M.Div. program 과정 중 평점(GPA)3을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학위를 인준 받을 수 있는 신학대학원으로부터 받은 학점중 6 학점까지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지원자는 M.Div 과정을 마친 후 최소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정규 4년제 대학교 I- 20 발급 TRACS, ABBHE, BPPE 인증대학, NCCAA 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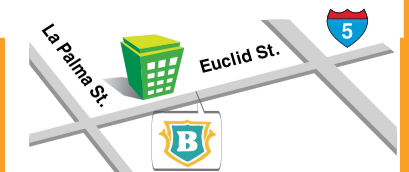
입학안내 문의 : 직통 213.327.8095 권 박 목사 / 목회학 박사과정 코디네이터

입학처 TEL : 714-517-1945 모니카 김 / E-mail monicakim@buc.edu

www.buc.edu로 방문하시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BETHESDA UNIVERSITY

Bethesda University Anaheim Main Campus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TEL : 714-517-1945 FAX : 714-683-1440 EMAIL : monicakim@buc.edu





목회서신

삶의 끝에 섰을 때!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지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각 구역에서 준비한 풍성한 만찬을 즐긴 후 온 성도들이 추수 감사 특별음악회에 참여해서 에벤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 특별음악회를 다

마치기전에 타코마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통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91세를 향수하신 타코마중앙장로교회 함양호 장로님께서 천국으로 가셨기에 제가 순서를 맡아서 이틀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12년 만에 떠났던 타

코마중앙장로교회에 다시 서니 감회가 깊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과 위로를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로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함 장로님은 제가 타코마에 부임해서 첫 번 작정새벽기도회 때, 빌립보서 2장 13절 "너

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저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교단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항공모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교회에서 한인으로 위싱턴 주의 최고의 부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함 장로님이 입을 넓게 벌리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제가 타코마중앙장로교회를 떠날 때, 그분은 사업이 번창하여 워싱턴 주에서 한인으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가장 앞장 서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타코마를 떠날 때 3일을 식음을 전폐하시고 드러누울 정도로 가슴 아파했던 분이셨습니다. 이번에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서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에 세 마디를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에 호스를 끼워 말을 할 수 없어서 글로 "화목, 엄마, 끝"이라고 쓰셨다는 글을 제가 보여 주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노환이신 엄마를 잘 부탁한다! 이제 다 이루었다.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유언이 사임에 관

한 얘기나 명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라, 엄마를 부탁한다. 천국에서 만나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믿음과 사랑에 관한 유언, 하늘소망에 관한 유언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여러분! 우리가 삶의 끝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미리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라도,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서 날 거룩과 사랑과 충성에 부끄럼이 없이 살다가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한 비전 공유... 개인적 영성에서 공동체 영성으로

리더십저널, 뉴욕 리더교회 팀 켈러 목사의 성장 노하우 전격 공개

뉴욕 맨해튼 한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리더교회를 향한 관심은 지대하다. '도시에서는 복음화가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에 역행하는 이곳을 향한 관심은 세계 각지의 목회자와 선교사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탐방하고 참관하고 리더교회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와 만나 뉴욕이라는 이 도시에서 열매 맺는 비결을 듣고 싶어 한다. 이에 대해 팀 켈러(Tim Keller) 목사의 대답은 동일한 '신학적 비전'을 교인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 형식이나 프로그램보다는 리더 교인들과 함께 뉴욕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수많은 시간과 기도와 눈물로 비전을 공유했던 것이다. 복음의 씨앗이 그대로 있지 않고, 도시라는 밭에 심겨지고, 또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그런 수고를 통해, 이 시대 복음의 영광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난다. 그래서 켈러 목사는 교인들이 각자만의 개인영성에서 반드시 벗어나 공동체 신앙으로 들어가 참여하는 가운데 복음이 온전하게 개화될 수 있다고 권면한다.



요즘 교회에서 개인 경건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다. 내적 경건과 영적 훈련, 소그룹 교제, 개인 관계 전도는 보통 개인적 영적 수준을 함양하기 위해 이뤄진다. 그런데 오늘 고민해볼 것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개인 경건의 강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인 경건의 강조가 자칫 개인주의적 세태 속에서 공동체의 경건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 영성에 열심인 성도가 때론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다양한 훈련의 참여는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된 세태의 왜곡된 표현일 수 있다. 다양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이 정도다' 하는 훈장이 되기도

'세상과 구별'은 세상에 역행하는 '반문화'... 공동체 신앙 통해 경험돼야 예배는 공동체적 비전 제시, 공유, 개인적 말씀의 작용 확인하는 장 돼야 개인경건 뿐 아니라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의 3중 울타리 작동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봉사조차도 나 개인의 헌신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돼 개인 평판이나 성취감을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 신앙이 약화되고, 개인 경건만 쫓는 세태는 갈수록 심화돼간다.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모두 있다. 외부적 요인은 쉽게 알 수 있다. 개인주의적 세태, 다원주의적, 포스트모던 사회의 시대정신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내부적 요인은 좋은 신앙의 메시지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많은 수련회와 부흥회에서 우리는 '교회에는 다니고 있으나 신앙이 없는' 상태에 대해 경계하며, 스스로가 그렇지 않은지 회개하도록

추구한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자칫 교회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 교회가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고, 나의 회심을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의 성찰로만 오해하게 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 경건이 과도하게 되면 진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10면으로 계속>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미연론, 출간 50년 만에 마틴 스콜세지 통해 12월 23일 개봉되는 영화 '침묵' 소개

앤드류 스사쿠의 소설 '침묵'이 드디어 영상을 통해 재현된다. '택시 드라이버',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등 허리우드 영화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거의 25년 동안 매달려 만든 영화 '침묵'이 성탄 연휴를 맞아 미 전역에서 개봉된다. US투데이는 "영화 '침묵'은 17세기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벌인 두 명의 예수회 수사에 관한 영화로 이들이 당면한 심각한 위험과 박해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Martin Scorsese's 'Silence' trailer is here). 또 LA타임스는 "카톨릭 신자인 스콜세지 감독이 2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역작으로 오스카에 도전한다"고 보도(25 years in the making, Martin Scorsese's 'Silence' will get its Oscar moment)하면서 흥행 면에서도 대박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화는 기독교가 금지됐던 17세기 일본에서 두 수사가 실종된 스승을 찾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신앙에 대한 시험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페레이라 신부(리암 니슨)가 배교(신앙을 버림)했다는 소식이 교황청에 알려진다. 그의 제자인 로드리고와 가르페 등이 그의 실패를 만회하고 선교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일본으로 파견된다. 그들은 가톨릭을 박해하는 어떤 행위도 깊은 신앙으로 견뎌내고 순교자가 되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것은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도 마찬가지였을 터. 그러나 스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교를 선택했다고 한다. 소박한 일본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자생적으로 신앙이 이어지고 있었다. 실패한 줄 알았던 페레이라는 사실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고 있었다. 로드리고와 가르페는 이들의 종교를 이끌면서 선교활동의 희망을 본다. 그러나 이 신도들은 일본 영주의 박해를

피해 살아남은 신도들이었을 뿐이다. 전에도 배교했다가 다시 신도가 된 기치지로(구보즈카 요스케)라는 청년 때문에 영주는 새로운 서양 신부들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고, 이들을 잡아들여 배교를 강요한다. 가톨릭 박해는 잔인하고, 야비했다. 그는 로드리고(앤드류 가필드)에게 성화를 받고 배교할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가 거부할 때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신도들을 고문하고, 죽였다. 몸을 묶은 채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목을 베고,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는 등 차가 떨리도록 잔인하다. 자기의 선택이 늦어져 신도의 가여운 희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로드리고는 갈등한다. 자신이 신을 저버리지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감히 신을 저버릴 순 없다. 자살 또한 교리에 어긋난다.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로드리고는 열심히 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두 수사는 화형과 익사의 위협에서 자신들을 포함해 개종한 일본인 크리스천을 구하기 위해, 크리스천임을 부정하고 예수상을 파괴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다. <13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On campus or Chicago, IL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모든 사물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 사물 자체에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는 자신을 위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사용자에게 시간을 가리켜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그를 만드신 자가 원하시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실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이 회복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그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 어떤 것도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직분과 직임이 올라갈수록 더욱 많은 폐해를 가져옴을 보게 될 것이다. 최근 일련의 한국의 일들이 이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존재목적 1. 성공

그러나 그 자유를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발견하는 헤겔의 의식 속에 있는 자유, 과연 그는 진정 자유를 알았는가? 에 의문을 던진다. 당신은 자유로운가? 아니, 자유를 아는가? 자유를 정말 원하는가? 또 사람들은 자유만큼 사랑을 인생의 존재이유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도 자유만큼이나 복잡다변한 정의를 가지고 있기에 다루기가 쉽지 않다.

예전에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를 갈구했지만, 요즘 같은 물질문명 시대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자유로운 자유를 요구하는 것을 본다. '더불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사고가 존재하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인생은 언제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종이 되고 매이는 자가 되고 말

장하는 이들을 보라. 얼마나 명예, 돈,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졌는가?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 청문회에 나와서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는 것을 본다. 대통령이라 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임에도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실이라는 인간의 본질이 회복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가진 권력이 강대할수록 더욱 많은 폐해를 가져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절대 기준에 매인 복된 인생

세상의 모든 일들은 상대적이다. 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할 하여도 바로 옆집 아이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

집을 반복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를 크게 여기지 않으신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너무 늦어지기 전에 일어나 다시 쓰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죄로 인한 상실로 실패한 인생을 위해 낮은 종의 모습으로 찾아와 위로하고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죄로 인해 실패한 나를 일으켜 세우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말 구유로 찾아오신 분이 회복케 하는 자 예수님이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2016년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인생은 후회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짐을 본다. 주님의 제자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보통은 연말시즌이 되면 후회하는 마음의 고통을 많이 호소한다. 목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교회)



만물을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뜻 -상실과 회복-

세상 사람들이 줄기차게 원하고 요구하는 그들의 존재 목적은 성공이다. 여러 갈래의 정의가 있겠지만, Vadpersher는 "성공이란 그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모아 여생을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 직업을 구하려는 실직자, 어린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하는 사람,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 혹은 유명한 스포츠맨이 되겠다는 사람 등등,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다양한 소원을 가운데,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자신의 품에 안는 것을 성공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성공의 기준에서의 정의일 따름이다. 돈을 바라던 사람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분명히 성공이다. 세상의 높은 권세를 꿈꾸던 사람이 이를 이루는 것은 분명히 성공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기준 혹은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 자신이 바라던 대로 무엇이 이루어낸 것을 뜻한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큰 권세나 능력을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취득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므로 다른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운명, 현실안주주의, 형식주의를 반드시 버려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신앙, 불순종, 자기 아집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는 미련한 자-바보가 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이니, 일단 성공하고 보자는 세상의 요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존재목적 2. 자유와 사랑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너무 비인간적으로 보인다면 좀 더 고상한 생각을 찾아보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의 존재 목적을 자유와 사랑에서 찾는 이들도 많이 있다. 실제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찾고자 하는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많은 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자유로 해석한다. 헤겔도 역사의 발전 그 정점에 자유를 둔다.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불행의 씨앗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적인 성공에 비해 상당히 본질에 접근한 듯 보여지는 자유와 사랑마저도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본다. 본질적인 이유는 인간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병들고 참된 진리와 자유와 사랑을 알만한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권세를 꿈꾸던 사람이 이를 이루는 것은 분명히 성공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기준 혹은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 자신이 바라던 대로 무엇이 이루어낸 것을 뜻한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큰 권세나 능력을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취득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존재목적의 상실

인간은 성공자체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일정부분 자유와 사랑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결국 제한된 만족을 줄 따름임을 알아 둔다. 왜 그런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물 자체에 존재의 목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사용자가 상실과 매인 속에 살고 있기에 현상적인 조건들을 변모시켜본들 여전히 자유와 사랑에서 거리가 먼, 참된 성공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매이게 되는 것이다.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주 심각한 말이지만, 결국 사람이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상실의 본질을 인지하고 회복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회복 없는 성공은 또 다른 재앙

영혼자체의 회복이 없는 세상적인 성공은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온다. 관리능력이 되지 않는 데, 좋은 것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상실로부터의 회복이 부재한 성공은 마치 소금물을 욕심내어 마시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몸의 병이 낫고, 사업이 대박을 내고 하는 것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모두가 상대적이고 제한적이며 비교우위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한잔해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나중에는 좋은 일이 없어도 그때 그 기쁨을 지키려고 계속 한잔씩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런 저런 명목으로 기뻐서 먹는 술이 아니라, 먹음으로 기쁘게 되는 종속, 매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중독에 드는 것이다.

최근의 한국의 정치 청문회에 등

있는데, 이제는 돈만 많아지고, 나머지 형제간의 우애나 부모자녀간의 공경과 효는 사라졌음을 본다. 돈이 없었을 때는 가족이 뿔뿔 뿔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서로를 생각하였는데, 요즘에는 돈 있는 부부는 방이 많으니 각자 따로 살고 고급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본다. 자녀들도 각자 핸드폰 들고 방에 들어가서 불행한 대화의 단절을 보게 된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돈을 복음으로 알았던 것이다.

교회생활도 과거의 교회생활 할 때와는 달라졌음을 본다. 예전에는 주일날도 저녁예배 드리고 마치면 성경대 연습하고 고3이어서 다음날 학교 상관없이 봉사했는데, 이제는 모든 면에서 물질적인 부를 이루며 살고 있지만, 결코 수치상의 액수의 증가가 진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은 보장할 수 없음을 보게 한다.

사람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 -상실과 회복

성경의 첫 부분은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회복의 길을 말한다. 아니, 회복의 길로 오라고 외치고 있다. 외칠 뿐만 아니라 마침내 회복자가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거의 강압(?)적으로 초청하신다. 그만큼 성경은 회복의 책이고,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끝은 회복된 자들의 삶을 보여 준다. 영원한 삶의 약속이다. 천국의 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회복자이신 주님을 통해 참된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회복은 상실을 전제로 하기에, 회복을 소망하며 상실의 과정을 넘어설 때, 그 인생에게 비로소 참된 성공과 자유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대통령이든 무엇을 하든지, 의미있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회복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생을 불러 쓰실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을 찾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죄에 미끄러져 쓰러지려 하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실패와 넘어

표를 이루지 못해 후회하고 이루어 놓고도 의미를 찾지 못해 후회하는 것을 본다. 여전히 상실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물의 회복자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내면의 영적질서가 상실을 넘어서 회복을 맞보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모든 것에 감사함을 본다. 지나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영혼의 울림이 상실의 상처를 몰아내고 감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현재 실패에도 당당하다. 회복을 맞보았기에, 하나님의 뜻은 나를 버려두지 않고 회복시키는 것임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있기에 그는 선하신 주의 뜻 안에서 다시 시작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과거에 매이지 않고 늘 새로운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회복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복이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우울한 현실 앞에 가슴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를 기도한다.

davidnj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제 남편이 고치지 못할 암으로 고생하며 키모데라피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지식으로서는 죽음은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 죄책이 다 제거되었는데 왜 죽음의 과정이 여전히 성도들에게도 찾아오는지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많은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요?

-그라나다힐에서 유 권사

A: 사랑하는 남편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인생의 동반자인 부인께서 마음의 심적 고통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 잘 치료하여 고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이 질병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권사님,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두 가지인데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죄에 의해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으로 지적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와 진노의 표현이요 죄의 값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죄책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신자들도 죽느냐?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분명 신자들에게

성도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천국으로 옮기는 과정

게도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죄의 정죄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이란 고통스런 체험을 통과하게 하시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받은 자기 백성을 성화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인생 훈련의 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훈련이 끝나고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딤후4:7-8).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파크 목사님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묘비에 She ascended to the Heaven이라고 썼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형벌의 의미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형벌이 남아있다는 관념은 연옥 불의 카톨릭 사상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한국의 조직신학자였던 박형용 박사는 그의 책 '종말론에서 성도의 죽음은 훈련의 정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6: 15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콕은 "죽는다는 생각,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식,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효과를 끼친다.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고 육육을 억제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정신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려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훌륭한 목사님도 육신의 암 투병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제한적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생명의 기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화 완성하여 천성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사망 저편에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초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집을 떠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고후5:1, 8). 그래서 요한 칼빈 선생은 임종을 앞두고 7시간을 기도하면서 로마서 8:18절을 암송하였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족히 비교 할 수 없도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 영어 : _____ 평신도 □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하니(HANI)



1백30만 명 이상의 하니족들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을 따라 중국 남쪽 윈난(Yunnan) 성 지방에 거주한다. 비록 이 산지 부족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들의 유목민 조상들은 북쪽 평원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으로 점차 이주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언어가 티벳-버마어(Tibeto-Burmese)군에 속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니족이 티벳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니족은 숲으로 둘러싸인 산들과 풍부한 강우와 비옥한 대지에 거주한다. 하니족 농부들은 가파른 산기슭을 따라 계단식 밭을 이룬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의 소규모 농업 촌락에는 대개 30-40가구가 모여 있다.

하니족은 수세기 동안 고산지역에 격리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그들의 모국어인 하니어에는 10개의 방언이 함께 통용되긴 했지만 1949년까지 문자를 가지지 못했다.

삶의 모습

하니족에게 가족은 가장 유의미한 집단이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일부일처가 법으로 되어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다처가 행해지기도 한다. "가계(family order)"는 가부장적이며 부계 즉 모든 남아(male babies)들은 아버지 혈통의 일부가 되는 반면, 여자들은 그저 남편의 일부로 속하게 된다. 남자 아이들은 그들 아버지의 이름과 연관이 있는 이름들이 이어지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니족은 거짓 없고 신실하며 친절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손님이 방문하면 하니족은 와인과 진한 차를 대접하는데, 이때 만약 손님이 그 대접한 것을 거절한다면 이는 주인에 대한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그 접대에 잘 응하면 그 집주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으로 응수하게 손님을 대접할 것이다.

하니족은 매년 여러 개의 대형 축제를 벌이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새해 축제이다. 이 일주일 동안의 행사는 10번째 달인 추수기동안에 행해진다. 새해 첫날 정오가 되면 행사 진행자가 검은 쌀로 된 3개의 공들을 뒤로 던지면서 지난해에게 작별을 고한다. 그리고 다시 흰쌀로 만들어진 3개의 공들을 앞에서 던지면서 새로운 해를 환영한다. 다음으로 특별한 그네타기를 위한 밧줄에 힘을 쓴다. 그리고 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네타기를 시작한다(그들은 이것이 재앙을 털어내고 번영의 해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날 저녁 동네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 한밤중이 되면 그 진행자가 축제를 끝내고 새로운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그네의 틀을 자른다.

축제기간 동안 하니족은 푸른색이나 검은 빛깔의 옷감과 염색 천

으로 만들어져 눈길을 끄는 수제 품 전통의상을 입는다. 남자는 특이한 자켓과 터번을 입는 반면, 여자는 민소매 블라우스에 특이한 모자를 쓴다.

그들의 신앙

전통적으로 하니족들의 신앙은 토속신앙과 다신교, 조상숭배의 복합적인 형태를 띠었다. "거룩한 산들(holy hills)"에는 나무들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믿었다. 오늘 날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유사한 신앙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미신적이며 쌍둥이나 장애아의 출생과 같은 특정한 사건들을 불행해지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런 어린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부모들은 추방당하며 그들의 집이나 소유를 불태워버린다. 그들은 하늘과 땅위의 존재하는 신들, 마을들을 보호하는 신들, 질병을 가져오는 악한 신들과 같은 자신들의 삶을 지배

하는 많은 신들을 믿는다. 하니족은 3명의 주요 종교적 성직자를 주시한다. '주이마(zuima)'는 모든 종교적 활동들을 총괄하는 최고 연장자 격의 가정에 속한 남자다. '베이마(beiama)'는 마술과 축기(귀신을 쫓아내기)를 행하는 남자들이다. 남자와 여자 '니마(nima)'는 예언을 하며 약재들을 관할하는 임무가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중국정부가 엄격하게 기독교를 금지한 이후, 현재 하니족 가운데 단 하나의 선교단체가 일하고 있다. 성경과 영화 '예수'는 아직 하니어로 번역되지 않았고, 기독교 방송이 아직 그들 지역에 없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하니족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콥트교회 폭탄 공격은 22세 자폭범 소행"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한 콥트교회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은 22세 자살 폭탄범인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일간 알야람 등 현지 언론이 12일 이집트 대통령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알텔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테러 희생자 24명에 대한 장례식이 끝난 뒤 "콥트교회 폭탄 공격은 마흐무드 사피크 모스타파(22)가 감행한 것으로 현장에서 그의 시신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어 "그 젊은 남성은 교회로 진입한 뒤 혼자서 자폭 폭탄을 터뜨렸다"며 "그는 가방이나 다른 물건을 소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집트 당국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성 1명을 포함한 사건 연루 용의자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폭탄 공격의 배후 세력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날 장례식이 끝난 후 콥트교도들이 항의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집트 일간 알야람이 알음에 따르면 폭탄 공격이 발생한 교회 바깥에서는 성난 콥트교 청년들과 경찰이 목숨걸이 싸움을 하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앞서 11일 오전 10시경 카이로 압바시아 구역에 있는 콥트교의 성 베드로교회 예배당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자폭범을 포함해 25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 콥트교는 전체 인구 9천만명 중 대다수가 이슬람 수니파인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종파이다. 콥트 신자 중 다수는 중앙 정부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집트 내 콥트교도는 700만-1천만명으로 추산되며, 인구 비율로는 8-11%를 차지한다.

"직장에서 성탄 분위기 내도 좋다"

성탄절을 앞두고 영국의 각 직장에서 자유롭게 예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채티티투데이 영국 평등과인권위원회(EHRC) 데이비드 아이작 의장이 최근 "직장에서 종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많은 신화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터에서) 성탄카드를 보내고 파티를 열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이작 의장의 말은 EHRC가 지난 2일 직장 내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드러난 기독교인들의 직장 내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영국은 2010년 직장 교육현장, 공공 서비스 분야 등 광범위한 공적 영역에서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이 발효돼 그 영향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고용주에 따라서는 종업원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거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만 해도 제재를 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 최근엔 성공회를 국교로 채택한 영국에서 성탄절에도 개인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없는 것이냐는 불만이 표출돼왔다.

아이작 의장은 "올 성탄절은 직장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즐거운 성탄 되세요(Season's greetings)'나 '겨울 축제(Winter)' 등의 말은 가능할 것"이라며 "직장에서 종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도 "영국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의 강력한 전통을 가졌다"며 "우리의 기독교 전통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터에서 신앙에 대해 말하고 크리스마스에 관해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되길 모두가 원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정기적으로 주말에 예배에 참석하는 크리스천이자 성공회 목사의 딸이다.

세계 언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세계의 눈도 대한민국 국회를 향했다. 미국 CNN방송과 일본

NHK방송 등 각국 주요 언론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내며 탄핵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외신들은 특히 향후 한국 정세가 불안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국 국회가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역사적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재적의원 3분의 2가 훌쩍 넘는 234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첫 여성 대통령의 충격적인 추락(stunning fall)"이라는 표현을, AFP통신은 "국가와 결혼했다"며 청와대로 들어간 정치인의 명예가 깜짝 놀랄 만큼 추락했다"는 비유를 들었다.

CNN은 "대통령이 소속된 당에서조차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이 많았다"며 탄핵안 가결 배경을 설명했다. 영국 BBC방송은 "수천명의 성난 시위대가 국회 밖에서 표결을 기다렸고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했다"고 분위기를 묘사했다.

탄핵안 가결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정치와 경제, 외교정책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이어 탄핵안까지 통과돼 한국 미래가 한층 더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탄핵안 가결은 최순실에게 무능하게 조종당했던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며 "아당은 현 상황을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이자 새 시대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나라당 주도의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국회가 국민이 함께 탄핵에 나선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 퇴사할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은 향후 탄핵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등을 차례로 꼽았다.

영국교회도 '이단 신천지' 경계령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온라인판은 "이만희가 신의 대인자라고 주장하는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해외에 나가서도 나라방신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온라인판은 10일 "영국 국교회가 런던 500개 교구에 '파라크리스토'를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보냈다"면서 "파라크리스토는 자신단체 이름으로 등록했으며 성경공부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이 단체는 한국의 '새 하늘과 새 땅' 교회로 알려진 신천지와 관련돼 있으며, 신천지의 설립자 이만희는 '신의 대인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신천지에 연관된 사람들은 점차 친구와 가족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몇몇은 그들의 직장도 대학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과 스위스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면서 "이 단체가 런던의 대형 복음주의 교회를 방문해 그들의 모임과 특별한 성경공부도 초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파라크리스토는 지난 여름 자신단체로 정식 등록을 했으며, 영국 전역에서 인유어를 위한 활동을 한다고 신고했다. 신문은 "파라크리스토는 런던 동쪽 캐너리 워프에 위치해 있지만 전화와 홈페이지 모두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영국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통제와 거짓말을 하는" 이단 신천지를 경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브롬프턴 홀리트리니티교회의

니키 검블 목사는 교회로 보낸 공문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우리교회와 다른교회의 성도들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속임수를 쓰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집단은 영국과 전 세계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집단"이라고 경고했다.

존 퍼터 세인트메리런던교회 목사와 교회 홈페이지에 "파라크리스토라는 사이비종교를 조심하라"는 글을 올려냈다. 그는 "이들이 친밀감을 갖고 접근하며 이후 캐너리 워프에서 성경공부를 하자고 초청할 것"이라면 "성경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임수와 통제를 하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가 제기되자 파라크리스토는 변호사를 통해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과 같은 내용을 파라크리스토에서도 가르친다"고 시인했다. 이어 "파라크리스토는 신천지의 드러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신천지 신도들에 의해 세워졌다"면서 "클라이언트(의뢰인)들의 성경공부는 자유"라고 주장했다.

"사이비 종교집단이 아니냐"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지시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파라크리스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은 개인적 선택에 의해 성경공부를 결정한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삶에 대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본인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영국 파라크리스토가 신천지와의 관계성을 실토했음에도 한국의 신천지는 "모른다"며 발뺌하고 있다. 신천지 고위관계자는 "파라크리스토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다"면서 "국내 포교도 잘 못하고 있는데, 해외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전혀 우리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신원호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는 "신천지에 빠진 한국의 피해자들 가운데 이혼 가족 학업포기 사직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런 신천지가 이제 는 외국에 나가서까지 나라방신을 시키고 있다"면서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구원파 등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포교활동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타임 올해의 인물...'분열된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시사주간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도 선정됐다.



타임은 6일 "어제의 정치 문화를 파괴함으로써 내일의 정치 문화에 대한 프레임에 제공했다"며 90번째 올해의 인물로 트럼프 당선인을 지목한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음을 알리는 타임의 최신호 표지에는 트럼프가 '분열된 미국'(Divided States of America)의 대통령이라는 설명도 들어갔다.

타임은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미국인들에게 절망에 대한 선동의 언어를 들려줬고, 진실이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 만큼만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일깨웠으며, 분노를 정치의 주류로 끌어들이고 공포심을 생중계함으로써 숨겨진 유권자들에게 힘을 실었다"고 풀이했다.

타임은 "평론가들이나 지식인들은 트럼프를 단지 저속하고 야만적이며, 본질은 거의 갖추지 않은 '쇼맨'으로 치부했다"면서 "그러나 그런 경멸이아말로 트럼프의 동력이 됐다"는 점을 비평가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트럼프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경멸을 보통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영국에서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득세하는 현상의 반영이고, 어떤 한 사람의 메시지가 아닌 그보다 훨씬 강한 일종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도 보였다.

아울러 타임은 "트럼프가 무엇이 미국의 가치인지에 대해 너무도 많은 과제와 너무도 많은 선택의 기로를 제공했다"면서 과연 미국 유권자들이 원하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그의 다음 과제라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가 자동화의 시대에 노동자들을 위한 뉴딜정책을 만들고,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며 공장을 다시 만드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부정했던 트렌드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NBC뉴스의 '투데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타임으로부터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데 대해 "매우 영광이고 큰 의미를 갖는다"는 소감을 밝혔다.

타임은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로 트럼프에게 패배한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그리고 '해커들'을 올렸다.

공격당하는 크리스천방송 진행자 부부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진보주의자들과 동성애자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크리스천 부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기독교 커뮤니티 '갓톡'은 지난 1일 AFA(American Family Association) 단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진보주의와 동성애 운동가들로부터 프로그램 하차 위협을 받고 있는 케이블 채널HGTV에서 많은 인기를 얻으며 방영되고 있는 'Fixer-upper' 프로그램의 주인공 집과 조앤 게인스 부부 돕기에 나섰다

이들 부부는 도시 외곽 지역의 낡은 집을 수리해서 집의 가치도 높이고 고객이 꿈꿔왔던 드림 하우스를 지어주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부부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건강한 부부와 가정의 모습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진보주의자들과 동성애 운동가들이 이들 부부를 하차시키려는 이유는 이들이 출석하는 교회와 담임목사가 결혼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 기초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기에도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교회에서 한 것까지 함께 포함해 이런 교회에 출석하는 부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당장 접어야 한다고 방송국에 항의했다는 내용이 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방송국은 그들의 입장을 밝히며 "우리 방송국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차원에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겠다"면서 항의를 묵살하고 있다.

AFA는 이들 부부가 방송에서 설교를 했다거나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내보낸 적이 없음에도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 성향을 드러내며 기독교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려는 진보주의자들과 동성애 운동가들의 비상식적인 항의에 이 부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와 격려를 요청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골란고원에 등장한 구름기둥... '이스라엘 보호, 하나님의 기적!'

페이스북에서 7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공유된 놀라운 영상이 있다. 이 영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지난 6일 한 기독교 블로거는 이스라엘 뉴스 온라인이 보도한 영상을 소개했다.

이스라엘 뉴스 온라인은 목요일에 게시된 영상은 거대한 구름과 먼지와 비가 섞인 기둥이 등장하는데 이 기둥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의 위험한 국경 지역을 순회하듯 지나고 있다. 이 영상이 촬영되기 나흘 전에는 바로 이 장소에서 ISIS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한 바 있었다.

믿기 어려운 점은 이 신비한 구름 기둥이 정확히 골란 고원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시리아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국경 앞에서 사라져 조금의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이상한 먼지와 구름과 비의 폭풍(구름기둥)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구름기둥은 마치 ISIS와 이스라엘 사이의 장벽처럼 놓여있었습니다"라고 이 영상을 게재한 페이스북에 설명하고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흥해를 갈랐을 때도 이처럼 보였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4)

조진모 목사 (펠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어거스틴 (5) -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창조 이후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했던 인류를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마지막 날 이후 모든 인류는 두 갈래의 길 중 한 쪽에 설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구속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류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질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이로 인한 책임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 두 인물, 두 길

어거스틴(354-430)은 사도의 신앙으로 뿌리를 내린 초대교회의 신학을 총 정리한 인물이다. 그의 신학 사상은 중세교회와 종교개혁시대는 물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절대적이다. 그의 막대한 업적들 가운데 후대교회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사상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원죄와 자유의지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를 내림으로,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학 전통을 세운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비단 초대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현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신학적 전통과 교파의 분열의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차지하고 있는 듯이 제법 크다.

어거스틴은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어둠의 세계에 빠져 쾌락을 탐닉하기를 즐겨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자신의 자서전인 "참회록"을 써내려가면서

놓치지 않으려는 주제였다. 그를 대단한 신앙인이자 교회의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는 내용을 주저하지 않고 써 내려갔다. 외부로 드러난 자신의 악한 행동은 물론, 그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천박한 생각들까지도 공개하였다. 독자들에게 자신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체현한 장본인이라는 확신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가 지녔던 성경지식과 신학에 대한 이해는 당대에 비금갈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으나,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그의 신학의 바탕이 된 것이다.

어거스틴과 한 해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인물을 소개한다. 은혜에 관한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을 소개할 때마다 반드시 거론되는 그의 이름은 펠라기우스(Pelagius, 354-420)이다. 영국에서 태어난 후 로마에 와서 활동하면서 제법 많은 추종자들을 불러 모았던 수도사이다. 그의 삶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금욕생활의 본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의 삶의 모습과 신학에서 쉽게 탐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택한 경건한 삶에 도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였다는 것이다.

동 시대에 살았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 결국 심한 갈등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서 교회는 두 사람이 각각 제시하는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하나는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의 선택'이라는 길이 있었다. 초대교회는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에 손을 들어주었다. 추후 에베소회의(431년)와 오렌지대회(529년)에서 어거스틴의 은혜 중

심 사상을 정통 신학으로 확인한 동시에, 펠라기우스의 신학은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대결구도는 후대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중세교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던 신학논쟁의 핵심이었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사이의 갈등으로 심화되었다. 결국 교회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아누스가 제시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다.

■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담의 원죄를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원죄를 전적으로 부인하였다. 아담은 분명 죄를 범한 죄인이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죄로 단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문제는 아담의 죄가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는 마치 죄를 짓기 전의 아담의 상태와 같다는 것이다.

갓 태어난 사람들에게 원죄가 없다는 것은 곧 개인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러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모두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후에 죄를 짓게 되

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설명한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인간은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다. 물론 결정은 순수하게 인간 개인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독특하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 은혜란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피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받는 모든 도움을 가리킨다.

■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426년부터 427년 사이에 "은혜와 자유의지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작성하였다. 매우 논리적이고 풍부한 성경적 뒷받침을 담고 있으므로, 신학자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본서는 전체 46장으로 구성되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원죄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주장하였다. 아담이 지은 죄는 개인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죄로 인한 영향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도저히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아무리 맑고 순진해 보여도 죄의 오염이 된 상태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개인이 죄를 지을 때 죄인이 된다는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정반대로, 어거스틴은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

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그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결국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근거한 행동이란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성경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단지 자유의지에 관계하여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하여 결코 선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자신

수 있는나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낳게 하였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의 선한 행위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죄와 선을 선택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죄인은 선행으로 구원을 선택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어거스틴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죄인의 의지와 모든 행위가 거짓될 뿐이다. 타락한 인류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창조 전에 선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는 죄인을 향해 무조건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죄인이 변화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2) 성경이 보인다 - 로마서 3장 23-25, 11:6; 갈라디아서, 3:13-14; 에베소서 2:4-8; 고린도전서 15:10, 디도서 3:4-7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따라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드리도록 삶의 정황을 주관하신다. 성도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곧 천국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나그네의 신분으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하신다.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에서의 삶이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우리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안에 거하여 살면서 평생토록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covenantcho@yahoo.com

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도로 빼앗지 않으셨다. 어거스틴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되었으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려한 것이다.

어거스틴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선행적 은총' 개념을 소개하였다. 혹시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선행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 것이다. 죄인이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곧 선행의 '가능성'이라고 표현한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대조를 이룬다.

■ 상반된 구원의 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 신학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간 길에 후대교회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교회의 역사는 선명된 두 개의 길로 나뉘어졌다. 인간의 원죄,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 두 사상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특별기고

고 이원상 목사님을 그리며...

배현찬 목사

(주예수교회/KAFHI이사장)



예수의 인격을 닮은 기도의 사람

위싱턴 중앙장로교회의 원로목사요, Seed선교회 설립자요, KAFHI 명예 이사장이신 이원상 목사님께서 지난 12월 5일 오전 5시 27분 향년 79세로 소천하셨다. 지난 2년여 가까이 투병해 오시면서 드 인제나 잔잔한 미소와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교계의 지도자로 이민 사회의 어른이셨던 분이시다.

26년 동안 위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시면서 미주 이민교계의 대표적인 모범 교회로뿐만 아니라, 미국 기독교계에도 부각된 대형교회로 성장시키신 분이시다. 남다른 선교의 열정으로 설립하신 Seed선교회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도록 국내외로 사역을 확장시켜 오신 분이시다.

위싱턴 이민사회와 교계뿐 아니라, 전 미주 한인사회에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끼쳐 오신 분이시다.

이 목사님의 인품은 '운유와 겸손'으로 이 목사님의 사역은 '기도'로 함축할 수 있다. 목자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닮아 가신 삶으로 여겨진다. 사역의 규모와 열매 이전에 그분의 온화한 모습과 겸손하신 자세는 은은하게

향기나는 꽃과 같다. 이 목사님의 일생은 자신의 욕망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포기과 함께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다.

피난생활, 장로이신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 의사가 아닌 목사의 사명을 품고, 준비과정으로 철학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명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신 이유다.

미국 유학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며(Dallas 신학교 Th.M),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석사신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시고 논문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부름 받은 위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성적인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다고 여기며 준비해왔던 교수의 꿈을 포기하고 이민 목회자로서 평생을 헌신하여왔다(72세에 영국 웨일즈대학에서 크리스토퍼를 연구하여 철학박사 Ph.D학위를 받으심으로 젊었을 때에 포기했던 꿈을 뒤늦게나마 이루셨다).

초기 목회상황에서 장에 부딪힌 그에게 달라스에 있는 지인들이 개척교회를 준비하며, 그곳에서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마치려

고 계획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섬기던 위싱턴 중앙장로교회 교우들의 간곡한 만류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목회지를 일구어 오늘의 대교회로 성장시키셨다.

인생의 위기와 기회의 양극단에서 그분은, 기도함으로써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환경적인 요인과 부름의 사인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의사의 욕망을 포기하고 목사로, 교수의 꿈을 포기하고 이민 목사로, 개척의 계획을 포기하고 담임목사로 26년을 위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시고 교회 내규에 따라 65세에 은퇴하신 후 자신이 설립한 Seed선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먼 여행이나 휴가도 마다하시고 한국에 출타하실 때에는 주일을 본 교회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일정을 조절하시면서, 말기진 양배와 목장을 위하여 신실하게 사명을 다해 오셨다. 오늘날 후배 목회자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희생적인 헌신으로 성실한 목회의 길을 걸어 오셨다.

필자는 24년전 위싱턴 인근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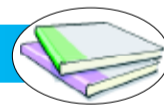
치몬드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목사님의 사랑과 지도를 받아온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20여년 전 위싱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함께 시작하고, 15년전에는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한인본부(KAFHI)를 창립하시면서, 당신의 대를 이어 늘 이사장직을 맡겨주시며 격려해주시고 인도해주셨다. 오래전 어느 선교기관 행사에서 당신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필자는 교육관 건축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던 때가 늘 잊혀지지 않는다. 그 후 은퇴하신 후에 후임목사 선정과 필자의 교육관건축 기도는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얼마 전 기아대책 이사회 후 만남에서 서로를 위하는 기도를 원하셔서 투병 중에서도 매우 밝고 환한 모습을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새롭다.

지나여름 한 장로님의 장례식 하관예배에서 나를 발견하고 기도를 부탁하셨던 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던 기쁨은 더 이상 누리지 못하지만 언제나 기도의 교제로서 후원해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셨다.

기도의 사람, 이원상 목사님,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운유와 겸손'의 그 부드러운 손을 한번 더 잡아보고 싶다. 우리 모두, 잔잔한 미소로 온화한 웃음을 띤 그 모습과 그리워할 것이다. 하늘의 면류관과 빛나는 상급을 받으시며, 지금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중앙장로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기실 줄 믿는다.

새책소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묵상집 I

저자 채동선 전도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교회 담임 채동선 전도사의 저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묵상집 I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출간됐다.

채동선 전도사는 서문에서 "가난은 부요의 반대라 아니라 단지 그것의 부재일 뿐이다. 마치 어두움이 빛의 반대라 아니라 빛의 부재인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안고 살아가는 부재, 결핍, 가난이라는



인생의 어둠과 결핍의 지점에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다...

이 실존적 문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역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분을 발견하게 되는 도구이다. 우리 인생의 어둠과 결핍의 지점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발견하고 만나고 바라보고 주목해야 되는 축복된 장소"라 말하며 "자신의 불능적 실존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을 만나는 작업이 참된 묵상의 본질이며 어두움의 자기 자리에서 빛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묵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적인 삶', '존재가 변화해', '나의기도', '참된 경건' 등 100장의 묵상 시로 엮어진 본 도서는 각 기독교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리더십 코멘터리 (32)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Endure 2016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파우스트를 집필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가 23세부터 82세까지, 무려 60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한다. 명작을 완성하기까지 그는 긴 세월 동안 법학자, 정치가, 사상가, 소설가, 시인, 화가, 연출가, 물리학자, 식물학자, 해부학자들의 다양한 종류의 일을 했다. 그러나 괴테가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그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내(endurance) 때문이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연구하고 쓰고 또 되고하기를 거듭하여 인내로 마침내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킨 것이다.

화가로 출세하고 명성을 얻게 되었으면서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미켈란젤로를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미켈란젤로 때문에 내 명성이 떨어질 거야. 저 친구를 매장시켜버려야 해.” 그 친구는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미켈란젤로를 교황에게 추천하여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그리도록 했다. 천정화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실패하여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절망하게 될 것을 계산하고 그런 일을 주선한 것이었다.

내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 인생에 더 큰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도중하차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란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은 계속 달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공부하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채워 주시되 감당치 못할 정도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한 것은 인내라는 이 두 글자뿐이다.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성공과 승리를 얻게 된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당신이 조금 더 인내함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2016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소망한다.

리더의 연말 슬럼프 극복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데일 카네기가 성공한 사업가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빛바랜 낡은 그림 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물이 빠져나간 깃발에 절망하게 될 것을 계산하고 그런 일을 주선한 것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리더여, 슬럼프를 극복하라.

연말 슬럼프 극복을 위한 코멘트

Leadership Commentary 1: 속도를 늦추고 소음을 줄여라.

슬럼프가 닥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슬럼프가 회복될 때까지 꼭 해야 할 일과 시급한 일을 제외한 사소한 일들은 뒤로 미루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시급하지 않은 일들을 항상 긴장하면서 생활해 온 사람들에게 고요함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Leadership Commentary 2: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하라.

슬럼프가 오면 역전의 기회로 삼아라.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업무에 매달려 왔던 자신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라. 취미활동을 통해서 내면세계를 다듬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의 분주함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을 때는 수동적인 방법보다 액티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 도움이 된다. 슬럼프가 오면 편안한 시간을 갖고 고갈된 에너지를

슬럼프 극복하고 밀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생각하며 인내해야 한다” “절망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희망으로 바뀐다”

인내(Endurance)

사람들은 중도에서 쉽게 포기하고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은 재능이 많다고 성공하지 못한다. 또 아이비리그 나 왔다고 출세 길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두려움 없는 강한 용기와 신념이 있다고 해도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내와 끈기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는 이유는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인내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있어야 한다. 사회생활을 잘 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 인생살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인 것이다.

전화위복(Blessings in Disguise)

16세기 이태리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친구는 미켈란젤로보다 먼저

아무 것도 모르는 미켈란젤로는 그 일을 하기로 했다. 그는 천정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림을 그렸다. 1년, 2년, 3년, 4년 동안 그는 페인트를 온 몸에 뒤집어쓰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다. 그러나 4년 후 그림이 완성되어 포장을 뜯었을 때는 교황도 깜짝 놀라고 그 친구도 깜짝 놀라게 되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놀랐다. 불후의 대작이 천정에 드러났던 것이다.

미켈란젤로를 세계적인 대 화가로 인정받게 만들어준 이 작품은, 처음에는 친구의 간교한 음모로 인해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음모가 미켈란젤로를 성공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희망(Hope)

영국의 역사학자인 칼라일은 “절망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희망으로 바뀐다”라고 말했다. 한때 절망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참을 것은 참고, 인내할 것은 인

주었다. 그런데 그림 밑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카네기는 성공한 사업가에게 그림의 유래에 대해서 물었다.

“제가 가난한 시절에 실패와 좌절 속에 슬럼프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고객을 방문 했다가 바로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나에게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감과 열정이 엄습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 그분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그림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나에게도 밀물 때가 온다는 말을 기억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그림에서 에너지를 얻었고 이 힘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일을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말한다. 왜 오늘날 살고 말 사람처럼 절망하고 포기하는가? 산을 오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걸림돌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그만두면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라.

Leadership Commentary 3: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여라.

슬럼프가 오면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바깥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빠른 속도로 걸어 보라. 조깅 하나만으로 슬럼프를 단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인간의 심신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체적으로 유쾌해지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사실 무슨 일든 힘들고 지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슬럼프에 빠져 무기력증에 의욕을 상실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회복의 때가 온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연말 슬럼프를 극복하고 밀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전3:1-2).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성탄의 마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종교성을 띤 인사라고 “Happy Holiday”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을 살고 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준비하면서 무엇인지 모르게 축하하는 분위기로 들떠있다. 우리가 지키는 기독교의 여러 절기 중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령강림절 등 모든 절기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아주 의미가 있는 절기이다. 한 해를 마감하는 달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해보고 어떻게 하면 성탄의 의미를 하루하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성탄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으신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태도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기적인 생각이나 자만심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한다. 낮아지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나의 경력, 자질을 알려야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별나라에서 온 사람 같은 태도이다. 가끔씩은 낮은 자리에 머무르려는 것이 애초에 바보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성탄을 맞으며 예수님이 지니셨던 마음에 나를 비추 본다.

특권을 포기하기는커녕 내가 지닌 권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지 침체당할 때 견디기 어려워하는 내 모습을 본다. 특별히 한국사람으로서 인종적인 무시를 당하는 것을 느낄 때면 더 많이 화가 나는 내 모습을 본다. 스스로를 비위 무런 땅에도 상관 없는 종의 모습을 택하신 예수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에 민감한 나를 본다. 그러면서도 상관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위 상한다고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본다. 자신을 낮추고 모든 자만심을 다 내려놓은 겸손의 모습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외롭고 험한 길을 가신 분하고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만한 나를 본다.

나를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성탄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없는 참으로 답답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런 한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 오셨다는 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고 온 천하가 기뻐할 소식이다. 바른 삶을 살아보겠다고 매일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도 도무지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의 기준을 보며 좌절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의 삶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귀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실 분이 되셨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너무 부족해서 늘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씻기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분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나아간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내가 비워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여쭙어 본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흉내 내면서 성탄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lpyun@apu.edu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7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7년 1월 27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7년 1월 2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7년 1월 30일(월) - 2월 1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크리스마스 축하 광고

Christmas Greetings

지극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아심을 입은 사람들중에 평화로다 아니라(눅 2:14)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Tel. (714)521-0991 Cell.(714)521-4636</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p> <p>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Tel. (323)913-4499 Fax.(323)913-4494</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p> <p>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p> <p>Tel.(562)691-0691 Fax.(562)691-0698</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p> <p>1645 Beverly Bl, L.A., CA 90026</p> <p>Tel. (213)481-2779 Fax.(213)481-3761</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p> <p>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Tel. (714)772-7777 Fax.(714)772-0777</p>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p> <p>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p> <p>Tel. (718)464-2295 Fax.(718)762-4693</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p> <p>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 NY11357</p> <p>Tel. (718)361-9199 Fax.(718)361-943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p> <p>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Tel. (516)295-7987 Fax.(516)883-1961</p>	<p>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p> <p>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p> <p>Tel. (718)224-1993</p>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p> <p>210-10 Horaca Harding Exp Bayside 11364</p> <p>Tel. (718)639-3021 Fax.(718)507-6376</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p> <p>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Tel. (201)342-9194 Fax.(201)943-5204</p>	<p>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p> <p>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Tel. (702)579-7576 Fax.(702)257-9191</p>	<p>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p> <p>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p> <p>Tel. (702)749-9909 Fax. (702)478-7224</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p> <p>37-57 104St, Flushing, NY 11368</p> <p>Tel. (718)961-2171 Fax.(718)961-3631</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p> <p>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Tel.(610)222-0691 Fax.(610)222-0692</p>	<p>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p> <p>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Tel.(213)381-2202 Fax(213)381-2535</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p> <p>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Tel. (410)461-1235 Fax.(410)461-6823</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중운</p> <p>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Tel. (215)945-1512 Fax.(215)945-2095</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p> <p>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Tel. (508)435-4579 Fax.(508)435-5467</p>	<p>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p> <p>21519 S. Menlo Ave, Torarncce CA 90502</p> <p>Tel.(310)749-0577</p>	<p>샤롯데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p> <p>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p> <p>Tel.(704)529-0900 Fax.(704)529-0998</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p> <p>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p> <p>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Tel.(206)527-0981 Fax.(206)524-1746</p>	<p>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p> <p>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p> <p>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Tel. (949)857-9425 Fax.(949)857-9472</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p> <p>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Tel. (215)542-0288 Fax.(215)542-9037</p>	<p>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 최창섭</p> <p>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p> <p>Tel.(718)570-5858</p>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p> <p>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Tel. (915)755-1490 Fax.(915)751-4365</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p> <p>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Tel.(907)344-6446, Fax.(907)344-3182</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Tel. (714)446-6200 Fax. (714)446-6207</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p> <p>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Tel.(703)941-4447 Fax.(703)941-4448</p>	<p>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p> <p>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Tel.(213)384-7274 Fax.(213)384-8638</p>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p> <p>168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8</p> <p>Tel. (714)524-8800 Fax.(562)690-8044</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p> <p>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Tel. (804)560-7500 Fax.(804)560-7514</p>	<p>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Tel. (310)530-4040 Fax.(310)530-8400</p>
<p>퀵스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p> <p>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p> <p>Tel. (718)672-1150 Fax.(718)672-1151</p>	<p>퀵스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p> <p>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Tel. (718)886-4040 Fax.(718)358-7789</p>	<p>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조진모</p> <p>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p> <p>Tel. (215)927-0630 Fax.(215)927-0643</p>	<p>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안상수</p> <p>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Tel.(860)643-4738 Fax.(860)647-0565</p>	<p>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p> <p>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Tel.(808)585-1859</p>	<p>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마이클</p> <p>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p> <p>Tel. (516)277-1103 Cell.(917)922-0500</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p> <p>2122 Metcalf St., Hon., HI 96822</p> <p>Tel. (808)947-5252 Fax.(808)947-5151</p>